

#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 살펴본 본질주의\*

오 성  
(서울대학교 철학과)

## I. 문제의 지평

‘본질’ 혹은 ‘본질주의’라는 단어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 그렇듯 철학적으로 전문적인 쓰임을 지닌다. 누군가가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는 반드시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진화 생물학자인 마이어(E. W. Mayr, 1904-2005)는 그의 저서인 “One long argument : Charles Darwin and the genesis of modern evolutionary thought”에서 확실히 부주의하게 ‘본질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를 반본질주의자로 표방했을 때, 그는 기본적으로 다윈의 동시대 본질주의 생물학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의도했는데 이를 위해 본질주의 자체를 공격하고 나아가 그 근원을 플라톤에게 묻는다. 플라톤이 본질주의를 창시한 이래로 모든 철학자들이 본질주의자였으며 다윈이 그러한 세계관을 무너뜨린 결정적 인물이라는 평가)는 분명히 흥미로운 해석이지만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어의 논증은 논증이라고 할 만큼 치밀하지 못하고 그 자신 역시 그다지 주의 깊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만큼 그의 논의 자체에 대한 분석적인 비판은 무의미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철학사에 대한 손

---

\* 『국가』 본문의 인용과 번역어는 모두 <『국가』, 박종현 역주, 서광사, 1997>에 의거했다.

1) E. Mayr, *One long argument : Charles Darwin and the genesis of modern evolutionary thought*, p.41.

쉬운 평가를 가지고 온다면, 특히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무비판적으로 재생산 된다면 분명히 가벼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본질주의’로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이론 양상 속에서 마이어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생물학적인 ‘변이’개념과 관련한 것이다. 그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 “변이라는 것은 일정한 본질의 내면이 불완전하게 반사되어 표현되는 것”<sup>2)</sup>이라는 세계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동굴의 비유를 읽는 것은 거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해석이다. ‘동굴의 비유’는 중기 플라톤의 대표 저작인 『국가』에 등장하는데 『국가』자체의 특별한 문제의식을 의식하고 충분히 문맥 속에서 고려된 뒤에야 온전히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나는 이하에서 『국가』의 독해를 통해 플라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본질’의 개념에 다가가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변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통해 본질주의·반본질주의 논쟁의 골자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 II. 플라톤의 이데아와 본질주의

### 1. 들어가기에 앞서

‘본질essence’이라는 말이 라틴어원을 갖고 있듯이 철학사적인 맥락에서 ‘본질주의’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주로 떠올리는 사람은 스콜라 철학자들일 것이다. 여기서 잠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형이상학』 7권에서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는 ‘본질’의 정의를 빌어보자. 그것은 “그것에 의해 어떤 것이 존재로 있었던 것이 계속하는 것”<sup>3)</sup>이다. 이 규정을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고친다면 <x라는 개체가 F라는 성질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x는 F라는 성질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F를 x의 본질이라 한다.>정도가 될 것이다.

<sup>2)</sup> Ibid, p.41.

<sup>3)</sup>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자와 본질에 대하여』, CAPUT I.

이 경우 본질은  $x$ 라는 개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존재 역시  $x$ 의 존재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개체에 플라톤의 설명방식은 이와 사뭇 다르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존재 근거는 개별적인 실체가 아닌 ‘이데아’라는 외재적 실재에 있다. 이데아만이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 즉 ‘ $x$ 의 존재를 계속하게 하는’ 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라톤을 ‘표준적인’ 본질주의자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x$ 가  $F$ 라는 속성을 가지는 것이 설령 이데아의 존재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이데아가 특정한  $x$ 에 필연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어있다면 비록 “ $x$ 에게  $F$ 라는 속성이 본질적으로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 $x$ 가  $F$ 의 속성을 띄는 것이 본질적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 $x$ 가  $F$ 의 속성을 필연적으로 띄게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그 의미 규정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이데아가 필연적으로 특정한  $x$ 에 관여하도록 되어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4)</sup>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바꾸어 먼저 ‘불완전한’ 형태의 본질주의적 서술, 즉 “ $x$ 에게  $F$ 가 본질적이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언급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플라톤의 이론 내부에 ‘본질주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으나 다소간에 독특한 방식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플라톤이 이러한 독특한 ‘본질주의적’ 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들을 도입하고 있는지<sup>5)</sup>, 그것이 그의 본질규정과 ‘정합적’이라는 것을 보인다. 특정한 이데아와 특정한 사물 간의 관계가 필연적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4) 『파이돈』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

“If there is anything beautiful besides Beauty itself, it is beautiful for no other reason than that it shares in that Beauty, of Goodness and Greatness and all the rest.”(100c)

5) 이것은 주로 ‘이데아’와 ‘좋은 이데아’에 어떤 성격들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 될 것이다.

## 2. '기능'의 측면에서 규정되는 본질

본질, 즉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이게 하는 것의 규정에 대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국가』 1권의 후미에서 드러난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이들이 올바르지 못한 자들보다 또한 더 훌륭하게 살며 더 행복한가”(352d)하는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사물의 ‘기능(erg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것이 그것으로써만(그것에 의해서라야만) 할 수 있는 또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352e) 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눈 말고 다른 것으로써 볼 수 없고 귀 이외의 다른 것으로써 들을 수 없다. 이렇듯 한 사물의 ‘기능’은 그것의 고유성,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런 기능이 잘 드러나고 수행되고 있는 상태를 특별히 사물의 ‘훌륭한 상태(arete)’라고 부른다.

이는 쉽게 그 기능을 규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사물 뿐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서로가 그다지 닮지를 았았고 각기 성향에 있어서 서로가 다르게 태어나서, 저마다 다른 일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370b)라고 하여 각각의 인간들에게 고유한 선천적 기질, 실현되어야만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국가 내에서의 선천적 기질에 따른 사람들의 역할로서 이야기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목적론적이고, 결정론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sup>6)</sup>

## 3. '이데아' 도입의 전략성

### 1) 개요

플라톤이 상식적인 설명방식을 거부하고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이데아’라는 초월적 개념을 도입한 것은 설령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신의 이론 체계 하에서 다소간에 ‘전략적’인 역할을

6) 한 사물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는 생각은 ‘제작자’를 가정하는 것이다. 후기 대화편인 『티마이오스』에 등장하는 데미우르고스가 제작자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은 『국가』의 내용과 정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플라톤 식’의 본질주의는 자연스럽게 목적론으로 귀결하게 된다.

잘 수행해 낸다. 앞서 언급한 ‘본질적인 기능’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사물에 실현되어야만 하는 본질적 기능이 있다고 보는 한에서, 훌륭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훌륭한 상태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기능에 의해 규정되므로 (의견이 아닌) ‘앎’의 대상에 포섭된다. 따라서 ‘훌륭한 상태’가 보편적이고 인식 가능해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데아는 ‘실재’의 속성을 추가로 담지하게 된다.

## 2) ‘본’으로서의 이데아

사물(사람)은 ‘기능’적 측면에서 훌륭한 상태 $\alpha\rho\epsilon\tau\epsilon$ 와 그렇지 못한 상태, 즉 나쁜 상태 $\kappa\alpha\kappa\iota\alpha$ )를 지니게 된다. 곧, 사물은 각각의 기능과 관련하여 훌륭한 상태 혹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라톤은 ① 나쁜 상태가 훌륭한 상태로 변화 가능하다는 것과 ② 훌륭한 상태가 단일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335d에서 차게 하는 것이 열의 반대되는 것(차가움)의 기능이며 습하게 하는 것이 건성의 반대(습함)의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훌륭하게 하는 것이 훌륭한 상태의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즉, 훌륭함은 다른 것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때에 그 대상은 그것보다 덜 훌륭한 것이 된다. 이러한 분석에서 [나쁨→훌륭함]으로의 이행이라는 아이디어가 드러난다.<sup>8)</sup>

380e에서 381c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훌륭한 상태가 단일하다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 7) 여기서 나쁜 상태는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훌륭한 상태’가 없는, 일종의 결여개념으로서 제시된다.
- 8) 이 경우 [나쁜 상태→훌륭한 상태]로의 단방향 이행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380e-381c까지의 논의를 볼 경우 ‘가장 훌륭한 것’(신)의 경우에만 역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훌륭한 상태→나쁜 상태]의 논의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은 일체가 다른 것에 의한 변화를 가장 적게 입게 된다”(381b)는 언급으로 보아 ‘대체로’ 나쁜 것에서 훌륭한 것으로의 변화만을 상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

- 어떤 것이 제 본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자신에 의해서 이거나 다른 것에 의해서이다.
- 가장 좋은(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들은 다른 것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 신은 가장 훌륭한 것이다.
- 따라서 신은 다른 것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
- 신이 변화한다면 필연적으로 덜 훌륭한 것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신이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이유도 없다.
- 따라서 신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신’은 ‘가장 훌륭한 상태arete’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가장 훌륭한 상태가 변할 경우 필연적으로 (똑같이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니라) 덜 훌륭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상태가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하지 않고, 유일한 이 모든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지식’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일처리를 두고서 자신과 같은 사람과 동일한 선택을 하려 한다”<sup>9)</sup>(350a)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훌륭함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식’이 관여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듯 사물에 실현되어야 할 바람직한 기능이 있으며, 그 실현 상태에 있어서 나쁜 상태와 훌륭한 상태가 있고, 나쁜 상태를 훌륭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에 따라, 그 실천을 위한 일종의 ‘규범typos’ 혹은 ‘본paradeigma’이 요구된다. 그리고 훌륭한 상태가 단일하며 그 규정과 관련하여 ‘지식’이 관여한다는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사물 x의 훌륭함 F가 ‘보편적’이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은 적어도 x의 외부에 있어야 한다.<sup>10)</sup> 또한 그것은 ‘앎’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

9) 본문의 대화문을 내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음 (앞으로 문답 형태로 되어 논문에 인용하는 데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하겠다.)

10) 궁극적으로 ‘본’은 단순히 x의 외부일 뿐만 아니라 현상 외부에 있어야만

문에 실재해야 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 한 ‘본질적 기능’이라는 착상의 존재론적 근거를 밝혀주는 일이기도 하다.

### 3) 실재로서의 이데아

이데아가 가지는 ‘실재’로서의 측면에 관한 논의는 『국가』5권의 뒷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부분의 논의는 파르메니데스의 착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의 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가 5권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며 플라톤은 그러한 존재유형과 관련해 각각에 대한 인식 능력을 연결시킨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름 자체’,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부터 그러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데 이는 초기 저술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이 확장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틀대면 어떠한 사물 또는 행위가 아름답다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같은 방식으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동시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이며 이때에 ‘그러한 것 자체’가 바로 이데아가 된다.11)

‘그러한 것 자체’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속성들, ‘불변의 것’이고(왜

한다. 가령  $x$ 보다 나은  $x'$ 가 있다고 보았을 때에  $x$ 의 입장에서는  $x'$ 를 본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도 역시 결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훌륭한 상태, 신적인 ‘본’을 우리는 현상 외부에서나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 11) 여기서 짚고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데아가 문장의 주어가 아닌 술어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초기대화편에서 문제의식이 설정된 배경을 고려해볼 때에, 이데아의 개념은 확실히 술어의 보편적인 의미와 그것을 담지하는 존재론적 근거에 대해 논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령 『에우티프론』에서 소크라테스는 “그 특성(eidos) 자체, 즉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경건한 것이 경건한 것이게 되는 그것”(6d)에 대해서 이야기 하며, “경건함은 ~이다”는 식의 규정을 추구하기 보다는 “ $x$ 는 경건하다”는 언급이 올바른가 하는 점을 묻고 있다.

이는 희랍인들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신은 ~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은 신이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 하곤 했다는 언어적 습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거스리, 『희랍철학입문』, p.24 참조)

나하면 그것이 변할 경우 동시에 여러 사물이나 행동들을 똑같이 ‘아름답다’라고 지칭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이것이 소크라테스-플라톤 철학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이다.) 문제 때문에 파르메니데스의 체계를 끌어온 듯 보인다. 기본적으로 파르메니데스의 체계는 진리 인식의 전제 조건으로 ‘존재’를 설정하고 각각의 인식 상태에 존재의 유형을 대입시킨 것인데 5권 뒷부분의 논증에서 그러한 영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완벽하게 있는 것 to pantelos on’은 완벽하게 인식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도 있지 않은 것’은 무슨 방법으로도 인식될 수 없다.”(477a) 이는 ‘있는 것 to on’에는 인식gnosis이, ‘있지 않은 것 to me on’에는 필연적으로 무지agnosia<sup>12)</sup>가 상관한다는 도식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의견doxa’이라는 능력을 그에 맞는 존재 형태에 위치시키기 위해 ‘능력’이라는 개념을 규정하는데 그것은 “‘있는 것들 ta onta’의 어떤 부류genos로, 그것들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작 할 수 있게도 되고, 또 다른 모든 것도 무엇이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도 되는”(477c)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특정한 능력이 자신의 특정한 대상을 갖는다는 것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인식이라는 능력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의견과 인식이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의견의 대상은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조차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의 대상은 있지 않은 것도 아니게 된다. 그리고 ‘의견’이라는 능력의 단계가 “인식보다는 더 어둡지만, 무지보다는 더 밝은 것”(478c)임을, 즉 인식과 무지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인식과 무지 사이에 있는 ‘의견’이라는 능력의 대상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있는 ‘있으면서 있지 않은 것’이 된다.

“어떤 식으로도 있지 않은 것’은 무슨 방법으로도 인식될 수 없다.”(477a) 소크라테스-플라톤 철학의 본령이 ‘~인 것 자체’에 대한

12) 무지agnosis는 이후에서도 ‘능력’으로서 논하지 않고 단어 상으로도 인식gnosis의 부정태로 되어 있듯이 ‘인식’이라는 능력의 결여태로서 설정된다. 즉, 적극적인 능력이 아니다.

앞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 것 자체’는 ‘있는 것’, 즉 존재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존재로서의 이데아는 우리가 특정한 술어에 대해 단지 그것이 활용되는 사례의 의미만이 아니라 ‘술어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특정한 ‘믿음’하에서 필연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본’과 ‘실재’라는 두 가지 측면의 내적 의존성

이데아의 이 두 가지 측면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 내적으로 서로의 특성에 논리적으로 의존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에 놓여 있다. 먼저 본으로서의 이데아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가장 훌륭한 상태’인데, 앞서 살펴본 380e에서 381c의 논의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즉, 완전한 것은 불변이다. 그리고 ‘불변성’은 있지 않은 것도 있기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닌 ‘있는 것’의 특성이다. 즉, ‘본’은 그 불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실재의 조건을 요구한다. 3-2)에서 언급했던, 훌륭함의 규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지식’이 관여한다는 것 역시 실재로서의 이데아를 요구하는 것이다. 있는 것만이 인식될 수 있다, 우리는 그 문제를 3-3)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또한 ‘좋은 자체’의 존재를 상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면 보편적 훌륭함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그리하여 좋은 자체를 일단 보게 되면, 이들은 그것을 본으로 삼고서”(540b)라고 말한바 그대로이다.

### 4. 좋음의 이데아

#### 1) 개요

『국가』1권에서 이야기된 ‘본질적 기능’과 ‘이데아’의 특성 사이에 놓여 있는 정합성은 ‘좋은 이데아’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견고하게 마무리 된다. 플라톤은 이 ‘좋은 이데아’라는 장치를 통해 『국가』 내에서 그가 구축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체계’의 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소크라테스는 그가 이제까지 다루었던 ‘올바름’ 등의 문제와 비교하여 ‘좋은의 이데아’를 “가장 중요한(최고의) 배움to megiston mathema”(505a)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의 ‘좋은’을 빠뜨린 채 그것을 소유한 들 아무 소용이 없다”(505b)고 풀어써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좋은’에 대한 논의는 직접적으로는 앞서 글라우콘이 제기했던 “올바름이 올바르지 못함보다도 더 낫다는 주장만 밝힐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이 그것을 지니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자체로서, 즉 신들이나 남들에게 발각되건 또는 그렇게 되지 않건 간에, 무슨 작용을 하기에, 한쪽은 좋은 것이지만, 다른 한쪽은 나쁜 것인지도 밝혀 달라”(367e)는 요구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름 뿐 아니라 모든 ‘~임’이 ‘좋은’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올바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올바름의 의미 규정을 했듯이 이번에는 ‘~이 좋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좋은의 의미 규정을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타의 이데아들에 대한 것과 달리 사람들이 유독 좋은에 관해서는 ‘의견’을 경멸하고 ‘사실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505d) 따라서 ‘좋은’에 관해서는 특히 ‘맑’이 요구되고 논의는 자연스럽게 ‘좋은의 이데아’에 대한 구체적 물음으로 이어진다.

플라톤은 좋은의 이데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다. 각각 태양의 비유, 선분의 비유, 동굴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 논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소 조심스런 추측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학문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 “What science is is evident from the following, if we must speak exactly and not be guided by similarities”(1139b)라 한 것은 이런 식의 플라톤의 화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비유에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태양의 비유에서 부족한 것을 선분의 비유에서 조명해서 이야기 하고 선분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의 문제가 태양의 비유의 테마가 된다. 이 모든 것이 ‘비유’를 통해서 수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비유들

의 집합이 구성하는 것은 뜻밖에도 하나의 ‘체계’에 다름 아니다.

## 2) 태양의 비유

‘좋은 이데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오는 태양의 비유가 시도하는 것은 ‘좋은 이데아’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시각opsis’이라는 지각이 다른 것들과 달리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이외에 ‘빛’이라는 매개가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특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태양은 시각 자체도, 그리고 시각의 주체(눈)도 아니지만 시각의 주체에 능력을 주고 시각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시각의 대상이기도 하다.

‘좋은 이데아’와 ‘지성’의 관계는 태양과 시각 사이의 관계와의 유비를 통해 설명이 된다. 즉, ‘지성’은 ‘좋은 이데아’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성립한다. 좋은 이데아는 지성 자체도, 그리고 지성의 주체도 아니지만 지성의 주체에 능력을 주고 지성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지성의 대상으로서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는 술어적으로 비교적 간단히 해석된다. 우리가 그 사물의 실재 존재 여부와는 별도로 빛이 비치는 곳에 있는 사물만을 볼 수 있듯이, 일단 이데아들 또한 실제 그러한지는 별도로 ‘~한 측면에서 좋다’는 측면에서만 인식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아름다움, 혹은 올바름에 대한 ‘앎’에 있어서 그것이 ‘~한 측면에서 좋다’고 규정되는 건 인식론적인 필연성이다. 우리가 개개의 이데아의 본성을 이룰테면 “‘올바름’은 ~한 측면에서 좋다”는 식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간다.

그러므로 인식되는 것들의 ‘인식됨’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좋은 이데아’로 인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존재하게’*einai* 되고 그 ‘본질’*ousia*을 갖게 되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요, ‘좋은 이데아’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지위와 힘에 있어서 ‘존재’를 초월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하게나.(509b)

이에 따르면 ‘ 좋음’은 단순히 그것을 척도로 해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데아들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즉, 한 개념의 본성은 본래 어떠한 측면에서 ‘ 좋도록’ 만들어졌으며 그 이외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이데아들의 존재 근거에 대한 이 논의를 소크라테스는 아카와 마찬가지로 ‘ 태양’과의 유비를 통해서 이끌어 낸다. 즉, 태양이 보이는 것들을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도록 만드는 (생성,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듯이 좋음의 이데아 역시 다른 이데아들이 존재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글라우콘 역시 이 논의에 무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태양과의 유사성을 다시 말해 달라”(509d)고 하는데 이는 유비 논증의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유비논증은 유사한 A와 B가 있을 때, A의 특성과 공통 되는 것이 B에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인데 이러한 류의 논증의 정확성은 A와 B의 유사성 정도에 기초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태양과 좋음의 이데아의 유사성을 보이기 위해 ‘ 선분의 비유’를 도입한다.

### 3) 선분의 비유

‘ 선분의 비유’에서 직접적으로 태양과 좋음의 이데아 사이의 유사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태양의 비유에서 소크라테스는 “ ‘ 좋음’이 ‘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지성과 지성에 알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갖는 바로 그런 관계를 태양은 ‘ 가시적 영역’에 있어서 ‘ 시각’과 ‘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갖는다”(508c)고 말한 바 있다. 즉, 태양은 가시적 영역(이하 가시계)에, 좋음의 이데아는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하 가지계)에 속하는 것이며, 선분의 비유에서는 이 두 세계가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지계에서의 존재 구조와 가시계에서의 존재 구조가 동일함을 밝히려 하는 것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소크라테스가 지시한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가시계의 것들		가지계의 것들	
영상-a	실물-b	(실물-c) <sup>13)</sup>	이데아 또는 형상들-d
상상-e	믿음, 확신-f	추론적 사고-g	지성에 의한 앎-h

먼저 가시계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영상’과 상대적으로 명확한 ‘실물’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a와 b의 관계가 진리와 진리 아님으로 인해 나뉘는 것이 ‘의견의 대상인 것’이 ‘인식 가능한 것’에 대해서 갖는 관계와 같다고 이야기 한다.(510a) 곧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가 b가 d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와 일치한다. 우리가 가시적인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는 b의 영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b가 d의 영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바,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의 한 부분에서는 앞서 모방의 대상(실물)들로 되었던 것들을 혼이 이번에는 영상들로 다룬다”(510b)라고 말한 그대로이다. 그리고 이렇듯, 가시계의 a가 b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가지계의 b가 d에 대해 갖는 관계의 유사성에서 두 세계의 ‘앎’을 이끌어 내려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말한 “태양과 좋음의 이데아의 유사성” 역시 가시계와 가지계의 일부로서 증명이 된다.<sup>14)</sup>

이 도식에서 특이한 것은 b와 c의 배열이다. “앞서 모방의 대상으로 되었던 것들을 혼이 이번에는 영상들로 다룬다”고 말한 것은 b와 c가 일치한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다.<sup>15)</sup>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13) 가시계의 실물 b가 가지계의 탐구에서는 영상으로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지계의 하위 항목에 따로 배치하였다. b와 c는 동일한 대상이나 각각에서 혼의 상태는 다르다.

14) 물론 이 증명은 불충분하다. 단지 플라톤이 선분의 비유를 통해서 목적했던 것을 추측해 볼 뿐이다.

15) 박종현은 『국가』의 한국어판 번역본 역주 88번에서 b와 c, f와 g의 ‘구간’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과 혼의 상태를 짝을 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구간에서의 ‘대상들’만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오히려 지각의 종류가 시각에서 지성으로 바뀌면서 혼의 상태가 달라진 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에서 c를

만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① 시각으로 실물을 대할 때는 ‘믿음’이었던 ‘혼의 상태’(511e)가 지성으로 실물을 대할 때는 ‘추론적 사고’로 변화한다는 것과 ② 가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인식의 ‘대상’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가 가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혼의 상태’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 되고 있다는 점이다.<sup>16)</sup>

추론적 사고는 c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들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탐구”(510b)이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추론적 사고의 예는 ‘수학 활동’이다.

즉 기하학이나 계산(산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홀수와 짝수, 도형들, 세 종류의 각, 그리고 각각의 탐구에 따른 이런 등속의 다른 것들,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서 가정한다는 걸, 또한 이것들을 가정들로 채택하고서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명백한 것들로서, 자신들에게도 남들한테도 더 이상의 아무런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걸 말일세. 이 가정들에서 출발하여 곧 나머지 것들을 가져서는, 애초에 고찰을 시작하게 된 대상에 이르러 일관성 있게(모순되지 않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도 말일세.(510d)

이와 같이 추론적 사고는 ‘가정’들을 이용하며, 결론이 그러한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일관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특성을 지닌다. 즉, 우리가 ‘1+1’이라는 문제에 대해 ‘2’라는 답을 내릴 때, 결론 ‘2’는 문제에서 이미 가정했던 정수의 체계와 같은 전제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도형’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

---

‘수학적인 것들’로 한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추론적 사고’라는 혼의 상태에 대상이 규정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b의 실물과 차별을 두어야만 하는 필요에 의해 억지로 한정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의식이 아닌데 일단 가지계에서는 인식의 대상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가지계의 인식의 대상인 ‘이데아’에 관해서는 우리가 곧바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특정한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에서(이후에서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혼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혼의 상태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찬가지이다. 여기서 도형은 c에 ‘정사각형 자체’와 같은 것들은 d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삼각형 자체’에 대한 논의가 ‘삼각형은 세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폐도형이다’라는 공리(가정)와 공리에서 따라 나오는 정리들에서 벗어나지 않듯이, 추론적 사고는 d에 대한 가정에서 벗어난 앎을 줄 수 없다.

플라톤이 굳이 ‘추론적 사고’를 믿음과 지성에 의한 앎 사이에 배치한 ‘의도’는 ‘선분의 비유’ 자체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글라우콘이 “‘실재하며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것’의 부분으로서, ‘변증술적 논변’의 학문에 의해서 고찰하게 되는 부분이 이른바 ‘학술들’에 의해 고찰하게 되는 부분보다도 더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구별하시고자 한다는 건 이해합니다”(511c)라고 이야기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수학을 비롯한 학술들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그것이 한 단계 떨어진 앎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추론적 사고’를 제시한 것 같지는 않다. 이 경우 오히려 추론적 사고 다음에 지성에 의한 앎이 온다고 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굴의 비유’에서 그 점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

#### 4) 동굴의 비유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잘 알려진 동굴의 비유를 설정한다. 즉, 죄수들이 동굴 안에 포박당한 채로 동굴 벽에 비친 실물들의 그림자들만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동굴 바깥으로는 태양과 자연물들이 있는 세계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동굴 안의 세계와 동굴 바깥의 세계를 각각 가시계와 가지계에 비유한다. 그리고 묶여 있는 죄수들은 평생 동안 실물의 그림자만을 보면서 그것을 논하고 있는 보통의 사람을 상징한다.

동굴의 비유가 지금까지 이야기 해 왔던 혼의 상태와 인식의 대상을 보다 입체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요약’의 의도로 이러한 비유를 설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동굴의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동굴 안에서 바깥의 세계로 나가게 될 사람의 행로와 그 이후의 운명이다.

소크라테스가 지속적으로 예시하는 것은 ‘강제적인 배움의 상황’이다. 즉, 만일 죄수의 포박을 강제로 풀어주고 그들에게 강제로 불빛을 보도록 했을 때에, 그리고 바깥의 세상으로 억지로 끌고 가서 햇빛 속으로 끌어낸다면 그의 눈을 멀어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그는 바깥 세계로의 여정을 “힘하고 가파른 오르막 길”(515e)이라고 비유함으로써 그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높은 곳으로 올라 ‘좋은 의 이데아’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혼의 전환”(518c)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생성’에서 ‘실재’로 혼을 끌어들이는 교과와 습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수’와 ‘계산’이라는 것이다.(522c)

이러한 언급에서 비로소 선분의 비유에서 ‘추론적 사고’를 제시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추론적 사고는 비록 이데아에 대한 ‘앎’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을 가지계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좋은 의 이데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예비단계’로서 제시된 것이다.

### 5) 세 가지 비유가 의미하는 바

이렇듯 ‘태양의 비유’에서는 좋은 의 이데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선분의 비유에서는 그 존재론적 위상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굴에 비유에서 그 인식의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요해하여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앎의 대상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서 그것의 존재론적 위상과 인식 방법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완결된 ‘지식의 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Ⅲ. 결론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바, 기능을 통한 사물의 본질 규정과 그것의 존재론적 근거인 이데아 사이의 이론적 정합성에 관한 논의는 ‘태양의 비유’에 등장하는 좋은 의 이데아의 특성만으로도 명확히 규정이 된다.

특정한 사물  $x$ 의 기능이  $F$ 라고 규정했을 때에 사물  $x$ 는 “ $x$ 는  $F$ 를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 $x$ 는  $F$ 하는 데에 좋다”는 것이다. 즉 ‘좋은 의 이데아’에 의한 규정과 맞아 떨어진다.  $F$ 라는  $x$ 의 기능을 이데아의 관계로 풀어서 해설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1. 개별적인  $x$ 는 이데아  $I$ 에 참여한다. :  $x$ 는  $I$ 이다.
2. 개별적 이데아  $I$ 는 좋은 의 이데아 에 참여한다. :  $I$ 는 ~에 좋다.
3. 따라서  $x$ 는  $I$ 이며  $I$ 인 한에서 ~에 좋다.<sup>17)</sup>

예를 들어서 해설하면 이러하다. 특정한 사물  $x$ 가 있고, 그것이 ‘침대의 이데아’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 $x$ 는 침대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침대의 이데아는 필연적으로 좋은 의 이데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침대 자체가 “침대는 누워서 자는 데에 좋다”는 식으로 규정됨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x$ 의 정의를 “ $x$ 는  $x$ 가 침대인 한에서 누워서 자는 데에 좋다”로 파악 할 수 있다. 사물  $x$ 에 이러한 본질이 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  $x$ 는 특정한 이데아  $I$ 와 닮은 한에서,  $I$ 라고 불리고  $I$ 의 좋음으로서 규정된다. 즉, “ $x$ 가  $I$ 이다”라고 불리려면 “훌륭한 상태 $arete$ ”에 있어야 한다.<sup>18)</sup>

17) 엄밀하게는 ‘ $x$ 는 오직  $I$ 에만 참여한다.’는 전제가 덧붙여져야만 3의 결론이 따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의도했던바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다소간의 비약이 덧붙여졌다. 더욱 엄밀한 논의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가령 ‘학자이면서 선생님인 사람’과 같은 사례에 대한 플라톤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연구의 부족으로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다.

18) 여기에서 잠시 『국가』의 논의와는 별도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것은 ‘좋은 의 이데아’가 규정하는 술어가 플라톤의 대화편 안에서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정리했듯 ‘~에 좋다’라고 하여 ‘기능’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 외에 그저 ‘좋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존재한다. 가령 『파이돈』편에 등장하듯이 ‘같음’의 이데아와 같은 것들은 기능의 차원에서 ‘좋다’라고 규정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완벽한, 좋음, 일종의 자기 목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 하에서 살펴본다면 마이어가 ‘진화론적 입장’에서 플라톤을 본질주의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 지 알 수 있다. 마이어는 본질주의자들이 ‘생물학적 변이’를 단순히 ‘본질의 결여’로서 이해한다고 보고 본질주의의 원류에 플라톤을 위치시키는데,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본질(어떠한 것 자체)인 ‘이데아’는 자연종의 원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술어의 의미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가 생물학적 본질의 불변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명백한 오인이다. 또한 플라톤에게 있어서 ‘나쁜 상태’인 본질의 결여는 언제나 ‘좋은 상태’로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결여인 ‘변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기 힘들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태생적인 측면의 차이는 기능(기질)의 차이로서 설명되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대하여 결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 참고문헌

## 1. 플라톤 저서(영역, 한역)

Plato, "Republic", *Complete works*, Cooper, John. (ed), Hackett, 1997

\_\_\_\_\_, "Phaedo"

\_\_\_\_\_, "Timaeus"

\_\_\_\_\_, "Euthyphro"

\_\_\_\_\_, 『국가』, 박종현 역주, 서광사, 1997

## 2. 역주서 및 기타 문헌

Julia Annas, *An introduction to Plato's Republic*, Clarendon press Oxford, 1982

E. Mayr, *One long argument : Charles Darwin and the genesis of modern evolutionary though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한역: 에른스트 마이어, 『진화론 논쟁』, 신현철 옮김, 사이언스 북스, 1998)

거스리, 『희랍철학 입문』, 박종현 옮김, 서광사 (원제-W.K.C. Guthrie, "The Greek philosophers, from Thales to Aristotle")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자와 본질에 관하여』, 정의채 옮김, 성바오로 팔수도회, 2004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Irwin, Terence. (ed), Hackett, 1985